

기사라기 신사 본전

기사라기 신사(衣更着神社)는 미야자와강이 스게강과 합류하는 곳에 있다.

신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전 스게무라(菅村)의 가미무라(上村)에 있던 우지가미구(氏神宮)와 같은 땅에 모셔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호레키 7년 "길소지략(吉蘇志略)"에 의하면 "생각컨대 기사라기(衣更着)라는 이름은 매우 새롭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모른다. 유래를 알지 못한다. 애석한 일이다. 제례 8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다.

쇼와 11년(1936년) "나가노현 정촌지(長野県町村誌)"에는 '기사라기 신사 손샤(村社, 마을 수호신을 모신 신사) 신사 터 동서 12칸, 남북 10칸, 면적 8묘보(畝歩) 스게 경지의 동쪽에 있음. 제신 고토시로누시노카미(事代主神). 제례일 9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다.

전면에 가구라덴(神樂殿)이 있고, 돌계단을 오른 정면에 기사라기 신사(衣更着神社), 그 오른쪽에 하치만구(八幡宮), 왼쪽에 우지가미구(氏神宮)가 모셔져 있다.

이들은 메이지 42년(1909년) 9월 신사 합병을 의해 가미무라(上村)의 우지가미구(氏神宮)와 가미데(神出)에 있던 하치만구(八幡宮)를 여기에 합사한 것이다.

현재 우지가미구(氏神宮) 터에는 미야모토(宮元, 신사에 봉사하는 사람)였던 가미쿠리야, 오히라, 하라무라 사람들에 의해 사당 터 보존 기념비가 건립되었다(다이쇼 4년(1915년) 건립).

건축은 모두 오이야(覆屋, 신사의 본전을 덮어 보호하는 건물) 안에 있는 잇켄샤나가레즈쿠리(一間社流造) 양식이며, 지붕은 고케라부키(노송나무 널지붕)이다.

기사라기 신사(衣更着神社)는 향배에 노키카라하후(軒唐破風) 박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배 홍량(虹梁) 위에는 소나무, 비파판에는 봉황 조각이 있다.

장식성이 강한 정면에 비해 지붕 박공벽 장식은 혼카에루마타(本龕股, 박공 위 개구리 뒷다리 형상의 조각), 홍량(虹梁), 대병속(大瓶束 술병 모양 기둥)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다.

에도 시대 후기의 다치카와류(立川流, 일본 진언종의 법류)의 영향을 받은 장인의 작품으로 보여진다.

하치만구(八幡宮)도 이와 비슷한 연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우지가미구(氏神宮)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에도 시대 중기의 것으로 추측된다.

또, 기사라기 신사에는 고쿠조 보살(虚空蔵菩薩)의 가케보토케(懸仏, 원판에 돋을새김한 불상)와 와니구치(鰐口, 불당 앞에 거는 밧줄을 매단 방울)가 봉납되어 있다.

제례는 매년 9월 1일에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9월 첫째 일요일에 행해지고 있다.

제례에는 사자춤이 봉납되는데, 옛날에는 '기사라기 신사의 불꽃축제'라고 불릴 정도로 불꽃 놀이가 성행했다.

젊은이들이 경쟁적으로 불꽃을 만들고, 대나무 테를 끼운 나무통으로 불꽃을 쏘아올렸으며, 경내에서는 성대하게 기소오도리 춤이 행해졌다고 한다.

"서축마군지(西筑摩郡誌)"에는 '옛날 제전은 2월이 행해졌다. 음력 2월의 다른 이름이 기사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확증은 없다.

1984년 8월 합사 70년 기념사업으로서 경내가 정비되었고, 도리이(鳥居) 2기도 새로 세워졌다.

'기소무라 문화재 탐방' (1986.3.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에서